「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5권 제2호(2004.11): 5-31

한국 사회 변화의 티핑 포인트와 시스템 사고

- 약자의 피드백 루프와 티핑 포인트들의 인과성 검토 -

Systems Thinking on the Change of Koean Society into Square Culture

김동환* · 김헌식**
Kim, Dong-Hwan* · Kim, Hun-Sik**

Abstract

Systems thinking is a methodology to explain structural mechanisms for resolving problems in highly complex and dynamic society. This article applies systems thinking to understand recent social and political changes in South Korea. This article identifies the weakers' virtuous circle that played central role in reinforcing soical climate to support the weakers and the oppressed group. Also this article adopts the concept of tipping points and triggers to explain how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are produced and widely accepted in a few days. In conclusion we propose that systems thinking is promising in understand social and political changes.

Keywords: 사회 정치적 변화, 시스템 사고, 티핑 포인트, 격발기재, 피드백 루프
(social and political change, system thinking, tipping point, trigger, feedback loop)

* 중앙대학교 공공정책학부 (제1저자, sddhkim@cau.ac.kr)
**문화비평가 (공동저자, codesss@hanmail.net)

Ⅰ. 다양한 사회 변화에 내재된 일관성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쏠림 현상을 목격하여 왔다. 예를 들어, 1997년도의 금융위기와 IMF 체제의 편입에 따른 위기 시스템의 상시화,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붉은 악마의 등장, 2002년 대선과 인터넷을 뒤흔든 노사모의 활동, 2004년 탄핵 정국과 총선에 의한 급속한 정치 지형의 변동 등을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연속적인 변화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단히 커다란 충격과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저변에 흐르는 일관된 법칙, 흐름 또는 판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문화적 속성에 원인을 두는 문화결정론 혹은 민족주의적 시각도 제기되었으며, 새로이 등장한 세대의 움직임과 문화가 다양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개혁 세력 중심의 견해도 있다. 아울러 경제주의나 국가주의적인 차원에서 최근에 발생한 현상들을 마케팅이나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시각들은 사회 흐름에 대한 여러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표면적인 현상에만 머물고 그 현상을 움직여가는 구조나 본질적인 메커니즘에는 이르지 못해 왔다. 다양한 사건들 및 그 사건들이 가져오는 다양한 파급효과들이 상호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한 단선적인 접근은 전체적인 틀을 보지 못하며, 다양한 사건들에 저변에 흐르는 일관된 흐름을 파악하는데 실패하였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티핑 포인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한 현상이나 사건이 사회 전체로 확산, 증폭되어간다는 점에서 티핑 포인트의 논리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설득력을 지닌다. 금융위기, 월드컵에서의 붉은 악마의 응원 열기, 노사모의 활동에 의한 대통령 선거의 쏠림 현상,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 지형의 급격한 변화 등은 모두 어느 한 순간에 한 방향으로 판세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즉, 전형적인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의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티핑 포인트는 한 현상이나 사건이 전체적으로 확산, 증폭되어가는 지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말콤 글래드웰(2004)은 티핑 포인트의 세 가지 특징으로 전염성이 있다는 점, 작은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변화가 극적인 순간에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을 한국 사회의 변화에 적용하는 것은 일견 그럴 듯 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티핑 포인트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일 뿐, 그 현상을 발생시킨 구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티핑 포인트는 하나의 개별적인 현상만을 설명할 뿐, 여러 현상들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

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사회를 강타한 변화의 물결들간에 어떠한 연결성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티핑 포인트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최근 들어 목격된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티핑 포인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티핑 포인트들은 어떠한 구조에서 발생된 것인가? 최근 들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티핑 포인트들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스템 사고의 관점을 취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들의 저변에 흐르는 구조와 그 구조들간의 연결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Ⅱ. 시스템 사고를 통한 한국 사회 변화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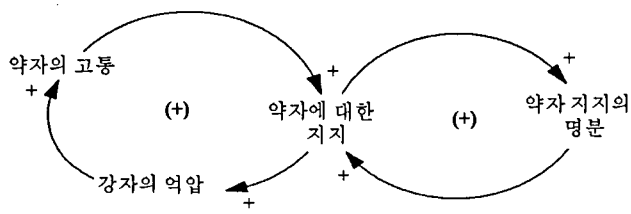
1. 한국 사회변화와 약자의 선순환

최근에 우리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사례들을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시스템 사고의 분석방법인 인과지도와 인지지도를 병행하여 사용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나열적인 분석이 아니라 양과 음의 피드백 루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티핑 포인트나 지렛대를 발견하고 그 대응방안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개의 인과지도(因果地圖)를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약자의 고통과 희생은 약자에 지지에 영향을 준다. 이는 약자에 대한 지지의 명분이 된다. 약자의 지지는 다시 약자에 대한 억압을 불러온다. 약자에 대한 지지의 명분은 다시 약자에 대한 지지를 불러온다. 하지만 약자에 대한 억압은 다시 약자의 고통을 낳는다. 이를 간단하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약자의 고통 => 약자에 대한 지지 => 약자에 대한 지지의 명분
- 약자에 대한 지지 => 약자에 대한 억압
- 약자에 대한 지지의 명분 => 약자에 대한 지지
- 약자에 대한 억압 => 약자의 고통

이러한 일련의 인과 관계는 단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인과 관계를 연결하여 보면 두개의 피드백 루프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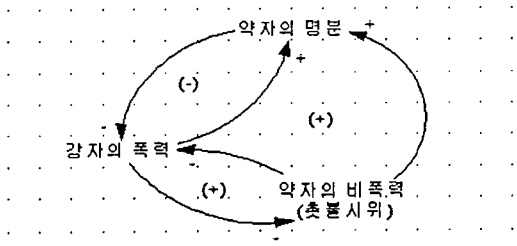
[그림 1] 약자의 선순환 I : 수동적 단계

첫번째 루프: 약자의 고통이 강해질수록 약자에 대한 지지가 증가한다. 그러나 약자에 대한 지지가 강해질수록, 그 약자와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강자의 억압이 강해진다. 이는 약자의 고통을 더욱 더 증가 시킨다

두번째 루프: 약자에 대한 지지가 증가할수록, 약자에 대한 지지의 명분이 증가한다. 약자에 대한 지지자가 많아질수록, 약자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옳은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그럴수록 약자에 대한 지지는 더욱 더 강해진다.

이렇게 형성된 두 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는 약자의 저항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이다. 강자가 약자를 억누를수록, 약자에 대한 지지는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약자의 선순환 앞에서 강자는 무력해 질 수밖에 없다. 강자는 점점 더 힘을 잃고, 약자는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는다.

위의 인과지도에서 설명한 약자의 선순환은 약자가 강자에게 당하고 그 피해를 받으면서 지지가 증폭되는 메커니즘이다. 즉, 수동적인 단계에서 작동하는 선순환이었다. 약자가 행동에 돌입하면서 작동하는 선순환이 있다. 능동적인 단계에서 작동하는 약자의 선순환은 촛불시위와 같은 비폭력과 관련된다. 비폭력은 두 가지 점에서 약자의 선순환을 가져온다. 첫째는 강자의 폭력을 억제하는 양의 피드백 루프이며, 둘째는 약자의 명분을 강화시키는 피드백 루프이다.



[그림 2] 약자의 선순환 II : 능동적 단계

먼저 약자가 비폭력을 고수하면, 강자는 폭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무장하지 않은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강자의 정당성은 추락하기 때문이다. 강자의 폭력이 감소하면서, 비폭력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 강자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약자에 대한 지지를 표면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약자의 비폭력은 약자의 명분을 강화시키면서, 강자의 폭력을 억제한다. 명분을 얻은 약자에 대해서 강자는 폭력을 동원하여 진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자의 폭력은 양의 피드백 루프를 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힘을 잃는다. 탱크로 무장한 강자는 속수무책으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약자의 비폭력 시위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시위대를 진압하러 온 전투 경찰에게 하얀 꽃을 달아 주는 여학생 앞에서 강자의 폭력은 무기력해 진다. 이와 동일한 선순환의 힘을 가지고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탱크에 올라가 러시아의 옐친은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약자의 비폭력이 갖는 위대한 힘이다. 약자의 비폭력은 강자의 폭력보다 강하다. 그러나 이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이다. 강자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 없는 약자들 혹은 빨리 공로를 성취하고 싶어 하는 약자들은 강자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무방하리라고 오해하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력 운동을 선택하는 순간 약자는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약자가 폭력을 선택하는 순간, 약자의 선순환(II)은 중지되면서, 강자의 보복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흑인 운동에 있어서 말콤 X의 폭력 운동이 실패하고 킹 목사의 비폭력 운동이 성공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 승리한 약자의 딜레마

약자의 선순환은 약자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다. 약자는 손에 주어진 영광스러운 승리만을 바라본다. 승리에 도취된 약자는 그 승리를 안겨다 준 선순환을 잊어버린다. 포획한 물고기에 도취하여 그 물고기를 잡은 그물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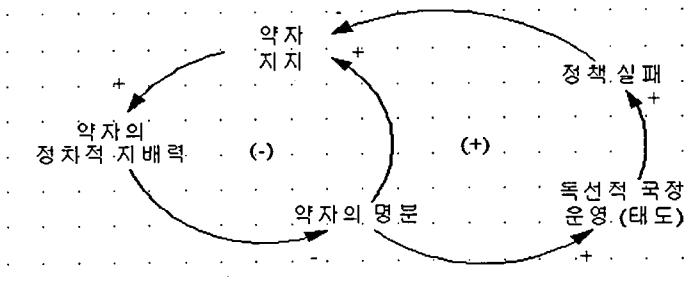
아름답게 조각한 얼음 조각은 추운 들판에 있을 때 그 생명이 오래 간다. 얼음 조각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따뜻한 건물 안으로 이동시킬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얼음 조각은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약자의 승리 역시 이와 같은 딜레마를 안고서 출발한다.

첫 번째 딜레마는 약자는 강자라는 상대방을 전제로 할 때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약자의 선순환이 작동한다고 해서, 약자와 강자와의 상호의존적 순환이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피드백 루프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약자가 승리하였다고 해서, 강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인정하기 싫어도, 약자는 강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딜

레마이다.

두 번째 딜레마는 약자가 승리하여 강자로 부상하는 그 순간부터 약자의 선순환은 멈추게 된다는 점이다.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의 선순환이 작동했던 것이다. 그 약자가 정치적 집권을 이룩하는 경우, 약자에게 보내던 한이 어린 지지는 멈추기 시작한다. 더군다나 약자의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명분)은 독선적인 태도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독선적인 태도는 양면성을 갖는다. 약자일 때 독선은 선명한 저항 또는 지조로 칭찬받지만, 강자로 등극하였을 때 독선적 태도는 독재 또는 횡포로 비난받는다.

결국 독선적 태도는 정책 실패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약자에 대한 지지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정치적 지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약자는 더욱 더 명분에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약자의 명분이 강조될수록, 독선적 태도는 더욱 강화된다. 이는 더 큰 정책 실패를 가져온다. 이렇게 하여 거대한 양의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다. 이번에 작동하는 양의 피드백 루프는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다. 승리한 약자는 이러한 악순환을 타고 급속히 정치적 지지를 상실하곤 한다.



[그림 3] 약자의 딜레마와 악순환

이는 비단 정책이나 정치의 영역에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나 노동 단체 등은 모두 시민이나 노동자라는 약자들을 대변한다. 그러나 지지를 많이 받고 조직이 커질수록 자신들의 결정이 옳은 것으로만 믿고,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과 그들의 논리에 대하여 둔감해지기 쉽다. 따라서 갈수록 의사결정의 실패가 나타나고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약자는 승리의 딜레마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먼저 패배한 강자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승리하기 전에는 강자를 강하게 비난하였을지 모르지만,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강자를 인정해야 한다. 강자를 인정할 때, 약자는 약자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배한 강자를 억압하여, 패배한 강자가 약자로 변화되는 순간, 약자

의 선순환은 패배한 강자를 위하여 돌기 시작한다. 강자가 약자로 비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배한 강자를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과거 강자를 공격하던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강자를 인정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도 쉽지 않다. 나아가 강자를 인정하는 것은 동료 집단으로부터 강자와 타협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승리한 약자는 명분에 대한 집착보다는 실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명분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독선을 강화시키고 정책 실패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명분을 고수하던 약자가 갑자기 실리를 말하는 것은 신념의 포기 나아가 배신이나 변절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이다.

약자의 승리는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안겨다 준다. 약자는 승리하더라도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운명인지 모른다. 약자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약자의 선순환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 아마도 자신의 약자성을 제대로 인정하는 겸손과 동료의 비난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만이 승리의 딜레마를 헤쳐갈 수 있는 묘약일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약자의 선순환과 승리한 약자의 딜레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개념적 틀을 가지고 최근의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약자의 선순환 구조라는 렌즈를 통하여 월드컵 축제를 통하여 형성된 붉은 악마와 광장의 문화,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촛불시위, 노사모를 축으로 한 2002년 대통령 선거, 탄핵반대 시위 등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승리한 약자의 딜레마라는 렌즈를 통하여 행정수도이전 및 이라크 파병에 따른 갈등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티핑 포인트의 이어짐으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

1. 1997년 금융위기와 사회적 약자의 확산, 외국에 대한 경계심, 인터넷의 확산

IMF체제의 경험은 한국사회의 일련의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티핑 포인트를 제공했다. 기존의 사회에서 발생한 모순적 요인들이 IMF관리체제라는 결과를 낳았고 IMF관리체제는 다시 다른 사회적인 변화의 지점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논란은 있지만 IMF체제는 결정적으로 금융위기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졌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흔히 국가중심의 경제 정책, 부패의 정실자본주의, 도덕적 해이, 재벌의존체제(대마불사론)를 들고 있다. 좌파적 시각에서는 한국전쟁과 냉전으로 비대해진 국가기구와 이를 중심으로 한 국가주도의 압축 성장형 비정상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그 원인을 두기도 한다.(조희연, 2004)

신장섭 · 장하준(2004)은 그간 한국의 IMF관리 체제를 불러일으켰던 원인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는 1997년 이후의 IMF관리 체제에서 이루어진 많은 구조조정의 결과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하고 있다. 즉, 외자유치에도 불구하고 극심해진 투자부진과 고실업, 심각한 빈부격차의 확대는 과연 IMF체제를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진단되었던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켜왔기 때문에 주목되었다.

이들은 정실자본주의, 국가산업정책, 도덕적 해이, 재벌의존체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은행-재벌'의 세 축이 세계자본과 경영에 경쟁 능력을 갖춰온 거센크론(Gerschenkron)식 '대체 전략'이라는 유리한 점을 간과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과 경제의 구축은 이 세 축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동력이라고 본다. 그러나 IMF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과 투명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갔고 세계적인 거센크론이 오히려 해체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재벌 같은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체제는 영국과 미국도 존재한다는 점은 이러한 거센크론의 당위성을 입증한다고 본다.

IMF관리 체제를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이들이 지목하는 것은 발전국가의 쇠퇴, 재벌들의 세계전략 실패, 금융자유화의 부실운영 등이다. 이러한 점들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발전국가의 쇠퇴는 국가 주도형 경제가 한국자본주의를 정착기에 접어들게 하면서 일어난 딜레마에서 비롯한다. 국가 주도형 산업 정책은 초기에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데 적합하지만 그것이 정착이 될수록 추진력을 잃게 된다. 또한 어느 정도 성장한 재벌체제는 국가정책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각개 격파 식으로 사업을 벌여나가기 시작한다. 따라서 재벌은 그야말로 재벌 체제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여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다시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을 약화시켰다. 국가주도권이 약화되면서 한국경제가 가진 국제 개방성에 대응하는 금융체제의 자유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굴뚝산업으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산업이 그 수익성을 잃고 있었고 새로운 산업과 경제체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이에 대응도 미비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자유화 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았다. 더구나 국가정책의 전체적인 틀에서 벗어나 후진적인 금융시스템 속에서 안주하며 방만하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던 재벌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IMF체제와 함께 신장섭 · 장하준의 주장처럼 완전하게 국가 주도형 사업추진이 사라졌다고는 할 수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식정보기반 산업정책이다. 중요한 것은 굴뚝산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으로는 한국경제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의 인지였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국가주도형 산업정책의 아비투스로 지식정보기반산업정책을 추진했다. 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각종 규제를 풀고 기

업이 창의력을 발휘해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2] 라고 했다. 취임사에서 지식과 정보가 물처럼 흐르는 지식정보강국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인 정책의 목표는 새로운 정보통신산업을 일으키는데 모아져 있었다. 또한 중간임기 중인 2000년 1월 신년사에서 "1999년까지 주력했던 'IMF 극복을 위한 경제위기관리 체제'에서 벗어나 '21세기형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3] <조선일보>는 "김 대통령은 27분의 연설 대부분을 '지식혁명 시대' '정보화-인터넷 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하면서 재임 중 우리나라를 '10대 지식정보 강국(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라며 신년사의 의미를 분석했다.[4]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의 구축에 대한 집중적인 추진은 IMF관리 체제 내에서 한국 수출의 산업적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했다. 초고속인터넷과 CDMA(코드분할다중접속)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디지털 문화컨텐츠산업의 성장이 괄목할만하게 이루어져왔다.

지식정보화와 관련한 정책이 모두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가 막대한 예산으로 벤처 밸리를 만들어 내려한 벤처 기업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일으켰다기보다는 내수의 진작을 위해서 돈을 푼 것과 다름이 없었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여기에서는 IMF관리 체제 초기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시행했던 신용카드 정책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이므로 이를 타개하고 내수의 부진을 씻고자 내수확대 정책을 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용카드정책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몇 백만의 신용불량자가 말해주듯이 가계 빚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의 상황을 낳았다.

우선 1999년 5월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됐다. 현금서비스 제한이 폐지되자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결제능력을 초과해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무분별한 물품 구입이나 대출이 결국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카드사들은 과당경쟁을 통해 신규 카드발행을 남발했다. 신용카드사는 현금대출 위주의 외형 확대 경쟁을 했고 카드 발급신청자의 신용도 평가 없이 무소득자와 신용불량자, 명의 차명자에게까지 카드를 남발했던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02년 5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184만여명에게 431만여 매의 신용카드(평균 2.3매)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심지어 국민카드 등 19개 카드사는 지난 2000년과

2) 10만 통신인력 양성/새정부 정보통신정책 방향, <동아일보>, 1998년 1월 3일자 14면

3) 김대중 대통령, 2000년 신년사

4) 김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것 ;남은 임기 '인터넷강국' 만든다, <조선일보> 2000년 1월 4일자

2001년에 사망자 189명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신청 후 사망한 451명의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내주기까지 했다.[5]

정부는 내수 진작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 시행이나 소득공제한도 확대(500만원) 방안을 추진했다. 재경부는 2001년 4월 금감원에게서 현금대출 취급 비중을 50%로 감축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1년간 묵살했고, 규개위는 그 해 7월 금감위가 신청한 신용카드 회원가두모집 금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6]

정부의 이러한 대응과 카드사의 과당경쟁, 카드 가입자의 불량은 신용카드사의 부실채권을 증가시켰다. 2000년까지 신용카드는 1994년의 두 배이자 전 국민 수보다 많은 5천만장으로 늘어나게 됐으나 개인파산이 만연, 총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4%까지 이르렀다.[7] 이 결과 큰 내수 위축으로 2004년 5%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 악재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에서는 과감한 외자유치 정책을 전개하였다.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라는 현상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금융위기 극복에 대하여 야당은 국내 기업을 외국에 팔아 넘겨 극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은 외국 자본 및 외국 세력에 대하여 경계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결국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인터넷 문화의 보편화, 사회적 약자 계층의 확산, 그리고 외국 특히 미국에 대한 경계심 확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증폭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2. 한일 월드컵과 붉은 악마, 그리고 광장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2년,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IMF 관리체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푸는 이벤트를 경험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축구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면서 전 국민이 축구 응원 열기에 휩싸인 것이다. 이는 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열기였다. 붉은 악마라는 상징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기이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서울의 시청앞 광장, 대학

5) 정책적 실패' 책임 민간 떠넘겨, <한겨레>, 2004년 7월 16일자

6) 정책실패만 있고 책임 없는 '면죄부', <한국일보>, 2004년 7월 16일자

7) 월스트리트저널, 2004년 8월 20일자

로, 강남역 대로, 광주, 부산 등 거의 모든 도시의 광장에는 응원 인파들이 몰려들어 전광판을 보면서 응원을 하였다. 이러한 열기는 축구 경기가 끝나고서도 자정까지 축제의 무드로 이어져 나갔다.

한일 월드컵에서 일어났던 일종의 광장 문화와 붉은 악마 현상을 대하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다. 월드컵을 통해 확인된 한국 사회의 에너지와 열기를 일종의 "국운 융성"의 계기로 삼자는 우파 국가-민족주의 시각이다. 이를 글로벌리즘, 애국주의나 국가주의를 강화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경제적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듣는 시각인데 분석결과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기에 이른다.[8]

한편 현실적인 제약과 장애에서 벗어나 소통의 시공간을 만들자는 서울문화이론연구소와 문화연대를 중심으로 문화사회주의(이동연 2002: a, b)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세종로를 문화광장으로 만들고 월드컵 세대를 문화의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9] 이는 문화의 주체와 저항이라는 도식적인 개념에 충실한 주장이다. 그러나 대중은 주체와 저항이라는 의식적이고 작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국가주의에 포박된 집단광기와 파시즘 연장선에 있다는 극단적인 비판사회이론이 있다. 즉 집단적인 애국주의가 개인의 넘어서 집단적인 강제심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좌파적 시각도 한계이지만 자발성이라는 요소와 이후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힘을 잃는 주장이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80년대의 변혁지향의 세력이 등장했다는 "신민중론"이다. 최원식(2002)은 "근대적 대중의 출현을 처음으로 보여준 3.1운동과 광복 후 문화운동의 뿌리가 된 4월 혁명 등 거대한 군중체험 뒤에는 반드시 문화운동이 폭발했던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월드컵에서 나타난 군중현상을 예사로 보아 넘길 수 없다"하는가 하면 "붉은 악마', 노사모'처럼 더 이상 정보 통제가 불가능하고 정보를 분석·해석할 뿐 아니라 생산해내기까

---

8)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R-소비자를 위한 R-마케팅'은 "R세대가 기존 세대와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면서 차세대 주요 소비자 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인다."며, 세대 마케팅의 대상이라 보았다. ▲자발적 공동체(Self-Motivated Community) ▲열정적 에너지(DynamicEnergy) ▲개방적 세계관(Open Mind) 등 3가지를 특징으로 꼽았다. R세대의 'R'는 월드컵 때 거리응원에 나선 이들의 가슴에 새겨졌던 구호(Be The Reds)를 의미 한다. 이러한 견해는 단지 젊은 세대만의 특징이라고 여길 뿐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세대보다는 국가 마케팅에 무게를 두었다. 보고서에서 "포스트 월드컵의 화두는 결국 국가 브랜드 마케팅"이라며 "향후 국가 브랜드로 역동성과 IT 강국 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마케팅은 대개 '인지도 상승 → 국가 이미지 개선 →수출 증대의 단계를 말한다.(월드컵 이후 경제는 국가브랜드 마케팅으로 이어져야, <한국일보> 2002년 7월 30일자 9면) 그러나 이것은 국가 마케팅에 유효하기보다는 사회변화의 메커니즘일 뿐이다.
정부에서도 2002년 7월 포스트 월드컵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의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9) '문화연대' 정책프로젝트 제안/세종로 광장 만들기 등 내용/`포스트 월드컵` 문화 운동 점화 , <문화일보> 2002년 7월 15일자 21면

지 하는 대중 집단, 그간 변혁운동을 꿈꾸던 이들이 한결같이 그리던 군중이 출현했는데 정작 지식인들은 당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10] 이러한 지적은 어느 날 한 순간에 이들이 등장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앞서 본 지적들을 총괄적으로 보자면 정책적인 지점이나 구조적인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자칫 일부 세대의 특징인 것으로만 여기게 한다. 전세대의 공통적인 연속성을 무시한다. 따라서 연속적인 현상을 낳게 하는 구조를 무시하게 한다. '왜 이들이 그렇게 광장으로 뛰어나왔을까' 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경제적인 관점이나 국가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저항적 문화사회주의라는 '이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미 '이즘'이나 '주의', 관념적인 도식으로 사회문화적인 분석을 할 경우에는 결론의 비약과 인과관계의 분석 없는 단순한 유사(pseudo) 직관만 강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이 많아지게 되면 변화의 티핑 포인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4강 신화를 이루면 다시 사람들의 폭발적인 역동성이 분출된다는 식의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축구팀에게 좋은 성적을 내서 사람들을 신나게 해달라는 주문 같은 것을 하게 된다. 위에서와 같은 관점을 취할 때, 정책은 이벤트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거나 멋진 승부를 내도 쉽게 재현되지 않는다. 축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구 이면의 인과적 메커니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디어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한국인의 특성을 사회경제적으로 분출시키자는 캠페인 성격 운동이 냄비 여론처럼 된다. 이는 사회적인 비용을 매몰시켜 버리는 상황을 만든다.

이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월드컵 과정에 나온 광장 문화와 사회적 능동성이 과연 IMF와 무관하냐는 점이다. 또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인과적으로 연결된 지점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IMF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맞게 된 IMF관리 체제를 일반 국민들은 거두절미하고 "IMF"라고 칭했다. "IMF 때문에 한국이 못살게 되었다. IMF가 한국을 잡아먹었다." 라고 공공연하게 표현했다. 즉, 강력한 IMF라는 것이 한국을 잡았다는 공포, 그 자체의 위협과 불안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부당하게 경제 주권을 침해당한 약자가 된 것이다.

이는 분명 1997년에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국제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국제화는 외국 자본이나 기업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은 반드시 민족 경제의 고수는 아니지만 경제와 경영에 대한 수동성과 피해의식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게 한다.

---

10) 월드컵 최종분석, <문화일보> 2002년 9월 2일자 21면

따라서 새로 들어서서 경제 난국을 타개해야 했던 국민의 정부가 가장 많은 역점을 두었던 것은 외국자본의 유치가 종속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창출이라는 점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민노동단체는 IMF의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국제 자본의 강자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국민의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적 관점을 부정하였다. 정책의 유연성과 현실 적용성에 앞서서 강자-약자라는 구도가 성립했고 이것이 대중적인 영향력을 형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인들이 그 동안 주변적 위치에서 핍박받아왔던 오랜 시공간적 경험과 고민에서 비롯한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과 변방의 인식은 일종의 강자에게 약자로서 당한 사회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기원하며 이것은 한국인들의 가지고 있는 "약자적 한(恨)"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부정적으로 전이되어 약자적 자학(이동식, 1974)이 되기도 한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점은 IMF체제의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경제 구조를 지식정보기반산업과 경제에서 찾고자 했던 정책적 노력이 사회 변화의 가능성과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초고속통신망구축 사업은 한국을 재빠르게 디지털 하부구조를 갖게 할 수 있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나라에 비기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같은 월드컵을 치렀던 일본의 경우 뒤늦게야 초고속통신망사업에 뛰어들었고 초기 산업 형성에서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늦어졌다. 이 결과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의 형성을 한국보다 활발하지 못하게 했다.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기존사회의 문제점과 모순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고려를 쓰러뜨리고 조선을 세운 신진사대와 무장 세력들은 기존 고려사회에 대한 활발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학농민전쟁이 가능했던 것은 활발해진 장(場)과 접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초고속통신망사업과 지식정보기반 경제에 대한 집중적 정책 추진은 산업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붉은 악마'다. '붉은악마'는 인터넷이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붉은 악마는 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그들의 활동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회에 급속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단지 인터넷은 본질이 아니다. 여기에 한국 축구가 지니고 변방과 비주류성이 가미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즉 한국의 축구가 아시아에서는 이름을 얻어왔지만 세계 축구무대에서는 제대로 된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월드컵이라는 세계무대에서 한국축구가 강호-강자들을 하나씩 무너뜨려가자 이런 약자적 한이 어느새 세계의 중심으로 분출되

었다. 이러한 분출의 뒤에는 인터넷 소통과 매체의 정보력이 언제나 강과 호수의 역할을 동시에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에서 과거와 현재의 세대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아리랑"이라는 약자의 한이 서린 노래였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나를 알아달라는 존재적 선언에 가깝다.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축구에만 열광하면 그 움직임은 하나의 대중도 아니고 공중도 아니고 다만 군중에 불과해진다. 그러나 월드컵에서 보인 사회적 움직임은 변화를 바라는 움직임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3.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촛불 시위

그 해 6월 13일에 동두천에서 있었던 미군장갑차에 의한 효순이, 미선이 사망 사건은 이러한 광장에 첫발을 내딛게 된 이러한 한(恨)의 소통을 촛불시위로 번지게 한다. 이러한 촛불시위가 반미시위이기 때문에 보수 우익 진영에서는 매우 많은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왔다. 검은 세력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시민단체들이 정권과 결탁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미군 범죄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은 희대의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을 종속시킨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주한미군문제의 주체로 연결시키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상반된 견해 사이에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연이어 일어난 촛불시위의 성격은 한국의 시위 문화 자체에 대해 살펴보는 데서 다시 구성해야 한다. 촛불시위는 기존의 시민사회나 기존질서와 사회에서 소외된 관점들이 피워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시위란 말 그대로 자신의 바라는 의도를 보여줌, 즉 변화를 바라는 움직임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육체적인 몸 사위로 보이는 셈이다. 촛불 시위는 "앙마"라는 인터넷 논객이 제안한 시위라는 것에서 매우 핵심적인 상징성을 드러낸다.

사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보인 시위문화가 과연 시민의 자발적인 시위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군사독재기간에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숙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이 시위의 주축이었다. 여기에 재야인사들의 결집이 시위의 중심축이 되고는 했다. 1987년 이후에는 노조가 본격적으로 결성되고 노동운동이 큰 축을 이루게 된다. 1990년 이후에는 기존의 노동, 사회 운동 방식의 한계와 민주화의 진전으로 제도적 틀 안의 시민사회운동의 필요성이 등장하면서 시위문화의 커다란 축은 시민사회단체로 옮겨간다. 상대적으로 학생운동은 당위성에만 머물러 시대적인 정책적 전문성과 다양성을 상실해 쇠퇴하게 된다. 사회 동력으로 작용했던 대학은 어느새 정치

무관심이라는 비판이 가해지는 대상에 이른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은 시위문화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셈이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광장에는 시민이 진정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외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소통과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 촛불 시위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수 일간지나 방송에서는 효순이 · 미선이 사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상태에서 억울한 죽음에 분노의 관점이 가득했다. 이것을 제대로 표출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한의 축적으로 존재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약자성이 버무려져 있다. 한국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조건 나가라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싫지만 있게 해야 하는 비극성은 한(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억울하게 미군도 아니고 장갑차에 치여 무참하게 사람이 죽었다. 강대국의 군대이므로 그에 대해서 변변하게 항의나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약자의 한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죽은 사람은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었고 민간인중에서도 중학생이었다. 더구나 남자 중학생도 아니고 여자 중학생이었다. 여중생은 약자인 한국에서도 가장 힘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을 표출할 적절한 시공간을 찾을 수 없었다.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의 제약은 그 비극을 한으로 농축시킨다.

이 때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 앙마(필명)가 두 여자 중학생을 추모하자는 뜻으로 인터넷을 통해 촛불시위를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11월 초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열렸다. 인터넷신문의 한 사람의 제안이 어느 한 순간 티핑포인트를 형성한 것이다. 이후에 촛불 시위는 지속적으로 열려 한 · 미행정협정 등 불합리한 관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하나의 부드럽지만 무엇보다 강한 평화적인 시위문화로 자리 잡았다.

촛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 세상을 밝게 해서 희생을 뜻한다. 어린 소녀들에게 난데없는 죽음을 던지는 어둠의 세상을 향한 촛불이었다. 약한 바람에는 쉽게 꺼지지만 여럿이면 꺼지지 않는 약자의 단결이 된다. 비록 힘은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초가 모여 거대한 불이 되었다. 그 불은 어둠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새벽을 끝까지 기다리는 불꽃이라는 점에서 꿈과 소망을 뜻한다. 촛불은 강자의 불이 아니라 약자의 불이다. 약자는 촛불 그 자체이기도 하고 약자가 가지는 꿈과 소망이다. 아울러 또 하나 다른 생명을 위해 피워 올리는 생명의 불이다. 효순이, 미선이가 촛불처럼 다시 살아오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다는 데서도 부드럽지만 질긴 생명성이 드러난다. 오늘의 초가 꺼진다고 해도 매일매일 다른 이들이 촛불을 피워 올리기 때문이다. 한 존재가 피워 올리지 않아도 매일 다른 이들이 촛불을 끊임없이 죽음의 밤사이를 갈라 친다. 시민운동과 시위문화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이들이 하나의 초를 통해 세상에 조용히 포효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조용한 몸짓과 소망이 거대한 자발적인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세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촛불을 밝혀드는 것일 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를 통해 어느새 한국 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생산하고 있었다. 월드컵을 통해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당당하게 알릴 자신감이 생겼고 그 수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소통 수단으로 평범한 한 사람의 제안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한이 모여 언제든지 사회 흐름의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위를 특정 사회단체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인다고 하거나 반미시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촛불시위를 있게 한 전반적인 기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촛불시위를 유도, 통제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게 된다. 2004년 봄까지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시위에만 500만 명이 이상이 참가했지만 이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참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강자의 지배에 대하여 약자의 한이 표출되는 피드백 효과로 보아야 한다.

4. 노사모와 2002년 대통령 선거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맨 처음 역시 인터넷이었다. 노사모가 주로 활동했던 공간은 인터넷 공간이었다.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노사모의 세력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노사모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들까지도 노사모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노사모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노사모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방문 기록은 폭발적이었으며, 전무후무한 현상이었다. 나아가 노사모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 곳곳으로 확산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노사모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여 급속히 확산되었다.

인터넷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피드백이 작용했는가를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무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코드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졸 출신으로 많은 고생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또한 편안한 변호사의 길을 가지 않고 군사 정권 시기에 인권변호와 민주화운동을 했다. 또한 기존의

지역주의 및 보스 중심의 정치권에서 소신 있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강자에 대항하는 약자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아울러 1989년 5공 비리 청문회에서의 노무현 의원은 군사정권이라는 강자에 대한 국민의 억압된 한을 분노로 표출하기도 하였다. 1990년 3당 합당 합류 거부 역시 강자인 군사정권과 기성 주류 질서에 타협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졌다.

특히 1992년 총선, 1995년 부산시장 선거, 1996년 15대 총선에서 그는 연거푸 낙선하고 1998년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서 어렵게 당선됐지만 2000년 '지역주의 타파'의 기치를 내걸고 부산에서 출마하는 무모한 시도가 실패한 것이 오히려 약자적 피드백으로 작용해 오히려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무모한 시도에 한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 '노사모'가 인터넷에 만들어지고 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하면서 결국 약자들의 대변자로서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순환을 탄 약자적 행동은 결국 폭발적 지지를 얻은 셈이다. 즉, 약자적 시도는 그것이 반복될수록 결국에는 긍정적인 선순환의 방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루프에는 시간 지연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정치인 노무현이라는 존재는 강자에 대응하는 약자인 국민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노사모뿐만 아니라 광주의 오랜 사회 역사적 한(恨)이 작용했다. 그동안 차별과 소외의 땅 광주에서 노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상징성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광주에서 노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증폭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이 점에서 보자면 가장 약자인 사람, 약자가 몰려있는 곳에서 증폭효과가 크게 나는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변화는 우선 정치인들에 대한 능동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시민 한명의 참여로 자신이 원하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다. 거물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보스 정당 정치가 사라지고 국민 경선제가 제도화 되었으며 정치 자금의 투명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시민운동이나 비주류의 출신들이 대거 최고 정책가 그룹에 들어갔다. 기득권 질서나 기성 질서에 대한 개혁 추진의 분위기가 갖추어졌다.

5. 탄핵 정국과 415 총선

2004년 4월 15일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나당은 공무원 선거법 중립위반과 실정 등을 들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게 된다. 이미 2002년 대선을 통해 형성되었던 지지도가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조금만 밀면 국민들이 실상을 알고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결과는 탄핵을 추진한 이들에게 오히려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혹은 민주개혁 세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여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 159명은 국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3월 11일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제지로 무산되었다. 3월 12일 오전 11시 5분쯤 몇몇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지키고 국회본회의장에 국회경위들과 함께 들어온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끌어내면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한 채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결국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야당의원 195명 가운데 2명만이 반대했다. 단 몇 분만에 오랜 민주화의 상징인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강제로 끌려 내려가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생생하게 생중계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끌어 내리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탄핵을 소추한 측은 거대한 강자이고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약자인 소수의 개혁 세력으로 비쳐졌다. 더구나 대통령은 변방과 비주류의 한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강도는 더 셀 수밖에 없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적인 여론수렴 없이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는 자신과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심리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약자인 자신이 언제든지 강자에게 당할 수 있고 당해왔다는 피해의식과 불안이 그대로 투영된 셈이다.

한편으로 이는 한국의 사회문화, 역사적인 맥락과도 닿는 것이다. 이렇게 다수의석을 통한 일방적인 힘의 행사는 국민적인 분노를 사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연일 촛불시위가 벌어지게 하였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탄핵사태에 대해 야3당의 쿠데타, 3·12쿠데타로 이름 붙이고 탄핵안 철회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시위와 분노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그대로 전해지면서 약자의 담론을 형성하기 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탄핵 소추는 이를 추진한 세력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과 분노는 다음달 실시된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지역구 129석, 비례대표 23석)을 차지했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21석)밖에 얻지 못했다. 총선이전에 61

석으로 제2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지역구 5석, 비례대표 4석)으로 원내교섭단체에도 실패했다. 원내교섭단체구성을 자신했던 자유민주연합은 지역구 4석만을 얻었다.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은 열린우리당이 38.3%, 한나라당이 35.8%, 민주노동당이 13%, 새천년민주당이 7.1%, 자유민주연합이 2.8%이었다. 12대 국회이래 16년 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 국회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10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진보정치의 시대를 연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진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민노당의 정책가능성과 타당성을 생각해 본다면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작용한 것은 두 가지 심리라고 할 수 있다. 변방과 비주류 출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소수당이 아니라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심리가 형성되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20%에 속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하나는 강자가 약자를 무참하게 짓밟는 현상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강자에 대한 혐오 내지는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건드리는 신성불가침의 위배에 대한 분노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를 왕조시대의 잔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왕은 왕이지만 모리배나 간신에 둘러싸인 약한 왕과 동일시되는 셈이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지켜야한다는 심리로 이어진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강자들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심리, 그리고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불쌍한 정당에게 표를 몰아주겠다는 동정심의 표현이 415 총선의 결과라는 것이다.

Ⅳ. 정책적 진단의 오류와 처방, 그리고 부작용

위에서 열거한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들은 사건 하나하나가 티핑 포인트를 형성하면서 한국 사회를 급격히 변화시켜 왔다. 아울러 이러한 티핑 포인트들은 하나의 변화가 다른 변화의 기반이 되는 방식으로 상호 연결되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대위법적인 변주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판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다. 이 때 변화를 발생시킨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의 결과만을 바라보는 경우, 현실을 오해할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정책 진단과 처방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즉, 약자에 대한 지지가 인터넷과 광장이라는 피드백 고리를 타고 증폭되었다는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총선 결과에만 집착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한다거나

다수의 국민들이 열린 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내건 정책을 지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1. 이라크 파병과 김선일 씨 사건

초기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경제적 이익 혹은 정치 외교 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였지만 명분 없는 전쟁 참여이라는 반대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파병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더 컸다. 그러나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지속적으로 파병에 대한 현실성을 주장하여 왔다. 미국과의 관계로 인하여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파병 반대의 여론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정책적인 홍보나 설득이라기보다는 김선일 씨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2004년 6월 22일 아랍계 무장단체 알카르자위에 피랍되었던 가나 무역 직원 김선일 씨가 참수된 채 발견되었다. 설마 참수 하겠느냐는 국민적인 안도와 불안의 교차점에서 벌어진 하루 만에 이 같은 일은 거센 분노를 자아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단 하루 만에 이라크에 파견한 병력을 철수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일방적인 힘의 행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두 번째, 군사, 무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민간인, 가나 무역 직원을 살해한 것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살인으로 보였다. 세 번째. 김선일 씨가 가난한 고학생이었다는 사실은 이 같은 약자성을 더 증폭했다. 네 번째, 한국은 미국과 우방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 졌다. 약한 국가가 가지는 슬픔과 한이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반대효과를 낸 것이다. 다섯 번째, 자신들의 약자성을 내세워 다른 약자들을 해치는 것은 약자라기보다는 강자에 가깝게만 보였다. 여섯 번째, 약자인 김선일 씨가 무고하게 죽었다는 생각은 일반 국민 누구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결과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보복, 구석에 몰린 쥐의 심리가 작용했다. 그러면서 파병을 통해 테러무장단체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러한 여론이 확산되자. 시민운동단체들은 감정적인 대응은 결코 좋은 피의 악순환을 부른다면서 자제를 공공연하게 호소하기에 이른다. 김선일 씨를 추모하는 촛불시위는 계속되었지만 파병 반대 시위는 잦아들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집회에도 불구하고 그 열화 같은 시위는 점점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할 때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서 파병을 찬성했다는 식의 사고는 커다란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모든 정책이나 정체성

까지 지지하고 있다는 식의 사고는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났다.

2.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갈등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수도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절차에 의해야 하며 헌법 개정은 국민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헌법 제130조의 참정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관습헌법의 존재유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참여정부나 열린 우리당은 수도이전에 관한 문제는 이미 대선에 국민의 심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전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선과정에서 수도이전문제는 막판 충청권의 표심을 잡기 위한 급조된 선거 공약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선거전략상 수도의 충청권이전을 반대했다. 그러나 충청민심은 열린우리당으로 돌아섰다.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지고 나서 충청권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용인한다. 그래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4년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그 법을 공표했다.

하지만 국회의 권능을 국민에 앞세우면서 탄핵 때와는 모순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모순이었다. 국민들이 수도이전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성격대로 집중적으로 고려할 여건이 없었던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는 제외하고는 정책적 비용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서울의 민생 안정, 지방 발전 육성이라는 당위적인 시각에서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 왔다. 정책적 지지와 정치적 지지는 다르다는 인식을 무지의 덤불에 머리만 숨기고 안주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이전에 대한 독주는 참여정부의 코드와 맞지 않는다. 일방향적인 일사분란함은 약자의 코드가 아니라 강자의 코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방향의 정책 추진이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진보독재와 관련이 있다. 약자를 대변하는 이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는 명분이 정책적인 결과까지도 모두 정당화 시켜주는 도덕적 전횡이 난무할 수 있다.

또한 지지를 통해 정책적 비약과 월권을 한다는 점이다. 열린 우리당은 탄핵 정국을 통해 다수당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당은 열린 우리당의 정책을 보고 지지해준 것이 아니라 강자에게 당하는 약자성의 피드백 루프에 따른 것이다. 강자들의 횡포에 따라 거품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품위에 정책적 당위성이나 현실성을 모두 합리화는

것은 거품이 꺼지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이것은 시행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자신을 헤치는 부메랑이 된다.

결국 수도 이전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인 국민적 지지와도 관련이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또 하나의 권위주의 정부를 의미한다. 정치의 약자적 사고에서 선거의 숫자적 지지를 믿고 정책에서 일방향적인 강자의 모습을 보일 경우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도이전과 관련한 위헌 판결의 경우 전국민적인 시위와 저항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다고 할 때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지원했던 많은 이들이 갑자기 반개혁파가 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슷한 유형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사고에서도 나타난다.

V. 결론 및 함의

IMF관리 체제의 등장, 2002년 월드컵, 대선의 노풍, 낙선 운동, 효순이 미선이 추모 집회, 반미 시위, 탄핵 정국, 김선일 씨와 이라크 파병 문제, 그리고 수도 이전 위헌 판결, 국보법개폐에 대응하는 움직임과 관련한 사회 문화적인 흐름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그것들을 분석하였지만 이러한 분석들은 대개 표면적인 현상에 초점을 두거나 단편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혹은 각 사례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다. 또한 처음의 모습이 왜 바뀌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했다.

앞서 살펴본 논의들은 시스템 사고의 피드백 루프를 통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온 것은 강자들 사이에서 고통 받고 소외 받았던 약자들에 대한 지지를 급격히 증폭시킨 양의 피드백 루프(positive feedback loops)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양의 피드백 루프가 폭발적으로 작동한 중요한 원인으로써 인터넷의 보편화를 들 수 있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으로 말미암아, 약자를 향한 피드백 루프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는 파워를 지니게 된 것이다.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구조 속에서 한국인의 내면에 잠재되어 왔던 한(恨)의 문화는 자유분방한 커뮤니케이션과 이합집산을 보장하는 인터넷이라는 현대 문명을 만나면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만한 양의 피드백 루프를 창조한 것이다. 약자를 향한 양의 피드백 루프가 폭발하여 경계선을 넘어설 때마다 한국 사회는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약자를 둘러싼 양의 피드백 루프가 무한히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약자를 향하여 무한한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다. 약자가 약자의 위상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약자를 향해 폭발적으로 불던 피드백 루프는 멈추기 시작한다. 온갖 반대와 모욕을 받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정점으로 하여 노사모의 피드백 루프는 멈추기 시작하였다. 월드컵 4강의 신화를 거머쥐던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축구팀을 향해 불던 양의 피드백 루프는 음의 피드백 루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광화문 사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 시위가 가장 밝게 타올랐을 때, 모든 정치인들이 촛불의 위세에 눌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촛불은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한 것이다. 무릇 약자가 약자의 위상을 벗어나, 약자를 지원하는 평범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약자를 향한 피드백 루프는 멈추기 시작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사회개혁에 대해서 독주적으로 나가자 시위현장에 나서는 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순수한 촛불시위가 시민단체의 운동방향으로 이용될 때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했다. 일종의 도덕적 강자의 피드백 루프가 시작되자 이탈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귀를 닫고 독선적으로 나갈 때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가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약자를 향한 피드백 루프가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그 순간을 놓치곤 한다. 피드백 루프의 극성(polarity)이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갈등이 잉태되는 메커니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변화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살펴봄으로써 하나의 변화가 어떻게 질적으로 상이한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요점은 결국 약자의 사고를 벗어나서 강자의 사고로 돌아서게 되는 순간, 그 사회 문화현상이나 조직, 주체들은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부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약자의 위치나 사고를 빌어서 강자적 태도로 나서며 오히려 자멸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모적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때에 따라서는 본래의 사회적 의미조차 잃고 있다. 따라서 약자의 사고는 그 약자적 사고의 특성과 틀에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해야 생명력을 지닌다. 또한 이럴 때 강자를 견제할 수 있으며 약자를 중심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결론삼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처음부터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들이 있었다. 이 가설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논의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이 가설들은 더 선명해졌다. 과거의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역동적인 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다시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티핑 포인트들은 구조적인 선순환에 의해 창출된다. 이 가설은 당연한 듯이 보이

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많은 지식인들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새로운 문화의 도래, 새로운 문화를 지닌 세대의 등장과 같은 사건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역사성을 함축하고 있다. 과거 오랜 시간에 걸친 한국 사회의 경험들이 빚어낸 사회 구조가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근본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피드백 루프를 통해 미미했던 변화가 증폭되고 이것이 적절한 티핑 포인트를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다. 티핑 포인트를 창출하는 피드백 루프는 양의 극성을 지니는 선순환일 수밖에 없다. 미시적인 변화를 사회 전체의 거시적인 변화로 증폭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 우리의 첫 번째 가설이었다.

둘째, 티핑 포인트를 창출했던 선순환은 약자의 선순환일 것이라는 점이 우리의 두 번째 가설이었다. 우리의 두번째 가설은 티핑 포인트를 가져온 선순환이 강자의 논리가 아닌 약자의 논리에 기초한 약자의 선순환이라는 점이다. 거기에는 강자를 사모하는 동경보다는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약자와 동일시하는 약자의 한이 흐르고 있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원동력은 강자 지향의 사고가 아니라 약자 지향의 사고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 사회에 불었던 급격한 변화들은 모두 약자의 선순환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닌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한국 사회의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할 수 있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변화에 집착하여 티핑 포인트를 오해하면 약자의 선순환이 정지된다는 것이 우리의 세 번째 가설이었다. 약자의 선순환은 약자에 대한 지지를 증폭시키지만, 어디까지나 약자가 약자로 존재할 때까지만 작동한다는 것이다. 약자가 강자로 등극하면서 부터, 약자의 선순환은 정지된다.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이카루스의 날개가 녹아 내려 땅으로 추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찬란한 승리를 향해 다가갈수록, 약자를 승리에 이르도록 한 약자의 선순환은 멈추기 시작한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약자는 추락하는 이카루스의 전철을 밟는 셈이다.

약자가 강자로 올라서는 그 순간부터 지지자들은 서서히 그러나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등을 돌리게 된다. 월드컵 축구팀이 4강의 신화를 달성하면서 붉은 악마의 열정은 식어가기 시작하였으며,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노사모 해체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인 노사모가 권력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리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오히려 노사모 자체가 움츠러들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민주화 운동을 수행했던 재야 세력이 민주화될수록 강력한 정치 집단으로 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의 전면에서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두운 밤

길을 밝혀주던 등불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꺼지는 법이다.

넷째 이러한 약자의 선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적 지지와 정책적 지지사이의 괴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다시 정책적인 실패, 사회적인 실패로 이어진다. 무리한 정책추진에 나서는 오류를 범할 때 더욱 심해진다. 정책이 실패하면 국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지지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강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약자의 행동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 지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비추어 실제에서 약자와 강자의 합의점이 찾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 변화 메커니즘은 정치, 정책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지지와 정책적인 인식 사이의 구분이 왜 중요한 지를 되새기길 수도 있다.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 가지로 접근하여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곽상만. (2000). 안보대화 없는 남북경협, 큰 한계에 부닥친다. 「신동아」, 12월호.

김동환. (2004). 「시스템 사고: 시스템으로 생각하기」. 서울 : 선학사.

_____. (2000). 「김대중 대통령의 시스템 사고」. 서울 : 집문당.

김헌식. (2003). 노무현 코드의 반란. 「월간 말」.

_____. (2003). 색깔논쟁-한국의 분단적 정책구조의 생산과 탈주. 「새로운 사람들」.

김도훈 · 문태훈 · 김동환. (1998). 「시스템 다이내믹스」. 서울 : 대영문화사.

이동식. (1974).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서울 : 일지사.

최원식. (2002). 특집방담 '한국의 문화지도. 어떻게 달라지나. 「계간 창작과비평」. 제29권 3호 : 180-210.

조희연. (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서울 : 아르케.

신장섭·장하준. (200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서울 : 창비.

이동연. (2002). 붉은 악마와 서포터즈 문화. 「당대비평」 제6권 2호 : 198-215.

_____. (2002). 월드컵과 시민운동 : 접근과 참여의 판을 벌이자 : 자발적 참여 에너지로 넘친 축제 한마당, 시민운동의 방향성 제시. 「주간한국」 통권1929호 : 122-123.

Andersen Roberts N. D. , R. Deal, M. Garet, W. Shaffer. (1983). *Introduction to Computer Simulation: A System Dynamics Modelling Approach.*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Anderson Virginia , Lauren Johnson. (1997). *Systems Thinking Basics: From Concepts to Causal Loops.* Pegasus Communications.

Axelrod, R. (1976). *Structure of Decision: The Cognitive Maps of Political Eli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yle. (1988). The Practice of system dynamics: milestones, lessons and ideas from 30 years experience. *System Dynamics Review*, Vol.14, No.4 : 343-365.

Eden. (1988). Cognitive Mapping.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36 : 1-13.

Forrester J.W. (1987). 14 Obvious Truths. *System Dynamics Review*, Vol.3 : 156-159.

_____. (1975). *Collected Papers of Jay W. Forrester.* Productivity Press.

_____. (1961). *Industrial Dynamics.* Cambridge: MIT Press.

_____. (1969). *Urban Dynamics.* Waltham, MA: Pegasus Communications.

_____. (1971). *World Dynamics.* Waltham, MA: Pegasus Communications.

Kim, Daniel H. (1992) *Systems Archetypes: Diagnosing Systemic Issues and Designing High-Leverage*

Interventions. 3-26. Cambridge : Pegasus Communications.

Maruyama, M. (1963). The Second Cybernetics: Deviation-amplifying mutual causal processes. *American Scientist,* Vol.51 : 164-179.

Meadows D.H. (1989). System Dynamics Meets the Press. *System Dynamics Review*, Vol.5 : 69-80.

_____. (1982). Whole Earth Models and Systems. *Coevolution Quarterly, Summer*, 98-108.

_____, D.L. Meadows, J. Randers, W. Behrens. (1972). *The Limits to Growth*, New York : Universe Books.

Morecroft, J.D.W., J.D. Sterman (eds). (1994). *Modeling for Learning Organizations,* Productivity Press.

Richardson G.P. (1991). *System Dynamics: Simulation for Policy Analysis from a Feedback Perspective. in P.A. Fishwick and P.A. Luker (eds.), Qualitative Simulation Modeling and Analysis*, 144-169. New York : Springer Verlag.

Richardson George P. (ed.). (1996). *Modelling for management I: Simulation in Support of Systems Thinking.*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Richardson, G.P. (1991). *Feeback Thought in Social Science and Systems Theor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Richardson, G.P., A. Pugh. (1981). *Introduction to System Dynamics Modeling with DYNAMO.* Cambridge, Mass.: MIT Press.

Richmond B. (1993). Systems Thinking: Critical Thinking Skills for the 1990s and Beyond. *System Dynamics Review*, Vol.9 : 113-33.

Roberts N., D. Andersen, R. Deal, M Garet, W. Shaffer. (1983). *Introduction to Computer Simulation: A System Dynamics Modeling Approach.*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Senge, P.M. (1990). The Leader's New Work: Building Learning Organizations. *Sloan Management Review*, Vol.32 : 7-23.

Sherwood Dennis. (2002). *Seeing the Forest for the Trees: A Manager's Guide to Applying Systems Thinking.* Nicholas Brealey Publishing.

Sterman. (2000). *Business Dynamics: Systems Thinking and Modeling for a Complex World.* The McGraw-Hill Company.

Wallerstein. (1978). .World-System. Thesis. *Science & Society*, Vol.42, No.1 : 43-61.

논문접수일: 2004. 9. 13 / 심사완료일: 2004. 10. 29